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19 No.3 Serial No.80 _ 2010. 06

#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치에 표현된 건축의장요소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Decorative Expression of the East Asian Buddhist Reliquaries in the Ancient Period

Author 김상태 Kim, Sang-Tae / 정회원,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Abstract The Buddhist reliquaries of these 6 Reliquaries(松林寺, 感恩寺, 法門寺, 慶山寺, 唐招提寺, 法隆寺 玉蟲廚子), when compared with those of China, Japan and Korea in the same period, they worshiped the Buddhist reliquary as a Buddhist God itself and put them as a part of the architectural decoration, being installed in the construction forms. In the form and the composition of the architecture, we can see those having been designed with very detailed and brightly decorated form. The Buddhist reliquaries in the Song-Lim-Sa, Kam-Eun-Sa, Fāménsi, Qingshānsi, Toshodaiji, and the Horyuji Tamamushi Zushi, the most important ones in this research, were in the precious tent and the inner and outer Coffins shapes having completely the altar part, interior space part, and the ceiling part, which inform us the whole structure of the architecture in details. After all these researches, we conclude that the Buddhist reliquaries in form of the Treasure-architecture represented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e same period as a form of industrial arts and we can see that they tried to use all of their highly skilled and talented methods to describe the Buddhist Pure Land.

Keywords 사리장치, 사리, 동아시아 고대건축, 건축구성, 건축의장
The Buddhist Reliquary, Sarira, Ancient Architecture in Eastern Asia, Architectural Composition, Architectural Decorative Desig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동아시아의 문화는 불교의 전래로 인하여 하나의 문화권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불상과 더불어 탑의 전파는 고대 동아시아 미술사와 건축사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탑 내부에 안치되는 사리장치는 불사리의 안치도구로 주로 미술사 분야에서 장식을 중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건축에서의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사리장치의 여러 분류 중 보장형사리기는 건축형태를 묘사한 경우로 당시의 건축구조 및 형태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형식인 보장형 사리장치를 통하여 7·8세기의 동아시아 건축형식과 의장 및 장식 적용과 표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리장치를 통한 건축연구는 건축유구이외에 미술사적 연구를 통하여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연구결과의 보편성을 추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범위에 있어, 그 시기는 고대시기로 신라의 건축과 예술이 국제적 모습을 띄는 동시에 신라 고유의 조형미를 표출하는 시기이다. 연구의 대상은 고대 7·8세기의 사리장치 중 건축의 형태인 전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장형사리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송림사 사리장치, 감은사 동 삼층석탑 사리장치 등 총 2기의 보장형사리기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사례로는 감숙성 대운사탑 사리장엄구, 경산사 사리내함과 법문사 지궁 중실 한백옥영장 같은 상장형태의 보장형과 관곽형 사리장치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은 당초제사 사리전과 법륭사 옥충주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사리장치의 정의, 유형분류, 동시대의 동아시아 사리장치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보장형사리기의 건축요소를 분류하여 조사한다. 또한 각 대상에 대한 분석틀에 따른 비교·분석 및 특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건축형식, 구조, 의장 및 장식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상 사리장치의 교리적 배경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 2. 사리장치의 정의와 동아시아 사리장치

### 2.1. 사리장치의 정의

사리는 크게 전신사리(全身舍利)와 쇄신사리(碎身舍利)[1]로 나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리는 쇄신사리를 의미한다. 또 다른 분류로는 진신사리와 법신사리로 나누어지는데, 진신은 부처의 유골을 의미하며, 법신은 경전을 의미한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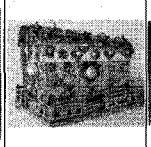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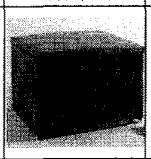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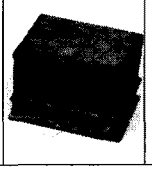
사리를 봉안할 때는 탑안에 사리공(舍利孔) 또는 사리실(舍利室) 등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여기에 사리를 담은 사리기(舍利器, 또는 사리함)를 넣는데, 사리기는 여러 가지 재질과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행위 및 결과, 사리봉안에 사용된 용기를 총칭하여 사리장치(舍利藏置), 사리장엄(舍利莊嚴)[3] 또는 사리장엄구라 말한다. 동아시아의 사리기는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유입되어,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개되었다. 사리장치에 대한 교리적 배경은 『아미타경』, 『반야경』, 『법화경』,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그리고 『전신사리경』이며[4], 이중 대표적 소의경전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다.

### 2.2. 7·8세기 동아시아 사리장치

동아시아의 사리장치는 중국의 탑, 불전 등의 불교건축이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개되는 바와 같다. 특이할 점은 한반도, 즉 신라의 사리장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조형미가 화려하며 조형기술 또한 뛰어난데, 감은사와 송림사의 사리장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 시기인 7세기와 8세기의 사리장치는 중국의 경우 수와 당의 시기로 불교의 부흥을 꾀한 수문제의 인수사리기와 당대 측천무후의 법문사가 대표되고 있다. 그 형태[5]는 상자형과 관곽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신라의 경우 송림사 5층전탑의 사리기와 감은사 동·서 석탑의 사리기, 그리고 황복사지 삼층석탑 금동사리외함으로 보장형과 상자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7세기 후반의 법륭사5층탑 사리기와 숭복사탑 사리기, 그리고 8세기의 당초제사 사리전, 법륭사 옥충주자[6]가 대표적이다. 이들 사리기는 주로 상자형과 호합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당초제사 사리기의 경우 보장형으로 신라보다 반세기 이상 늦은 시기여서 신라의 영향을 추측할 수 있다. <표 1>을 통한 7·8세기 동아시아 사리장치의 비교를 보면, 수와 당의 중국은 사실적 표현으로서의 관(棺)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신라의 경우 전각모습의 보장형과 함의 음각명문을 통하여 보다 건축적인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신라의 형식을 함께 수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1> 7·8세기 동아시아 대표적 사리장치 비교표

| 시기 | 사리장엄구(사리기) | | | |
|---|---|---|---|---|
| 수·당 | 섬서성 남전현 사리장엄구 (7C초) | 감숙성 대운사탑 사리장엄구 (691) | 법문사 영장 도금 쌍봉문은관 (708) | 법문사 지궁 중실 한백옥영장 (708) |
| | |  | | |
| 신라 | 송림사 금동 사리장치 (7세기, 8~9세기) | 감은사 동탑 사리장치 (682) | 황복사 삼층석탑사리 외함 (692) | 전 전 남원 발견 금동보장형사리기 (8~9세기) |
| | | |  | |
| 일본 | 일본 법륭사 5층 탑사리기 (7C후) | 일본 숭복사탑 사리기 (7C후) | 일본당초제사 사리전 (8C중) | 일본 법륭사 옥충주자 (8C초) |
| | |  | | |

### 2.3. 신라의 사리장치 전래와 사례

고대 한반도에는 불상의 유입과 함께 불탑의 조성이 일반적인 가람구성의 형식이다. 불탑이 있다면 그 탑 안에 봉안되어야할 사리가 있으며, 사리는 반드시 사리기에 의하여 보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발견되었거나, 혹은 문헌상 그 흔적이 보이는 사리나 사리기는 신라와 백제[7]에서 제작되었거나, 통일 후의 시기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고구려의 가람 유적지에는 사리기를 놓았던 사리공이 발견되어, 불탑조성과 함께 사리기의 제작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7·8세기 통일전후기의 신라 건축은 외래문물의 적극수용과 효율적인 행정운용을 통해 국제수준의 세련된 건축을 만들면서, 신라 고유한 건축적 독창성을 창출해내는 성과를 이룩한다.[8] 특히 석재를 이용한 석탑 건립은 신

1) 전신사리는 토장(土葬)시의 유골을 의미하며, 쇄신사리는 화장(火葬)을 하였을 때의 유골을 의미한다.
2) 국립중앙박물관-강우방, 佛舍利莊嚴-佛舍利莊嚴論, 도서출판 김문사, 1991, p.131
3) 신대현, 한국의 사리장엄, 혜안, 2003, p.13
4) 국립중앙박물관-강우방, 앞의 책, pp.136~150
5) 사리장엄의 유형은 3.1절에서 6종류로 호합형, 상자형, 보장형, 관곽형, 다각당형, 그리고 탑형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보장형과 관곽형의 경우 형태는 다르지만 건축적 구성은 비슷하다.
6) 일본 법륭사 옥충주자(玉蟲廚子)의 제작시기는 크게 650년경과 8C초로 구분되어지는데, 옥충주자의 건축요소와 회화요소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향이 모두 나타나고 있어, 통일신라시기인 8C초가 유력한 제작시기로 볼 수 있다. 김주미, 玉蟲廚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1, pp.80~81
7) 백제에서는 왕흥사지(2007)와 미륵사지(2009)에서 사리장치가 출토되었다. 두 사리장치의 유형은 호합형이다.
8)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p.73

라 건축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데, 그 석탑안의 사리기 또한 신라만의 독특한 조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7·8세기의 신라 사리장치는 12기의 사례가 보이고 있다. 초기의 사리장치인 송림사와 감은사의 경우 대표적인 보장형 사리함으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 보장형이 많이 보이고 있다. 신라의 사리장치는 불사리의 장엄을 매우 화려하고 제작에 있어 심혈을 기울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7·8세기는 호국불교의 발원으로 인한 통일전쟁의 승리라는 국가적 차원의 불교 부흥을 가져왔다. 이는 중국과 차별화된 신라고유의 건축배치와 형식, 그리고 의장수법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건축수법은 일본 하쿠호(白鳳, 689~719)시대 건축에 영향을 주었다.[9]

시기상으로 보면 8세기 중엽에 가장 많은 사리장치의 제작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불국사의 창건과 같은 시기로 개인적 교원이 발호로 비롯된 불탑시주와 매우 큰 연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고대 불교의 시주는 불상의 시주보다 불탑의 시주가 매우 큰 영향력을 보인다. 다른 시기와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불탑의 조성과 사리장치의 봉인은 개인적 불교의 발전을 보인 국제화된 통일신라의 시대상 결과로 보인다.

## 3. 사리장치의 유형과 건축형태 사리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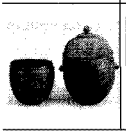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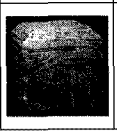
### 3.1. 사리장치의 유형분류

사리장치의 유형분류는 호합형, 상자형, 보장형, 관곽형, 다각당형, 그리고 탑형으로 6가지로 분류된다.[10]

호합형은 호(壺)형과 합(盒)형을 합한 것으로 병이나 그릇 모습의 사리기를 말한다. 호형은 말 그대로 병의 모습으로 어깨가 둥글게 벌어지고 함체가 완만하게 굴곡되어 내려가며, 주둥이 위에 뚜껑이 얹혀진 형태이다. 합형은 뚜껑이 덮여있는 주둥이가 비교적 넓고, 키가 낮은 그릇모습이다. 중국에서는 이른 시기인 상대와 주대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불국사 삼층석탑의 은제 사리호 및 금동 사리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동제 사리호, 석남사지 납석 사리호,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납석 사리호 등 상자형과 함께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리유형이다.

상자(箱子)형은 이름 그대로 상자형태의 사리기를 말한다. 상자형은 보장형에서 유래되어 단순한 상자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뚜껑은 천개[11]를 표현하였으며, 기단과 내부공간부를 간략화 한 것이다. 사례로는 황복사 삼층석탑 사리외함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기,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금동 사리관, 황룡사 구층목탑지 금동 사리외함,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금동 사리외함 등으로 많은 사리함이 이형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표적 예는 섬서성 남전현 출토사리장치구이며, 일본은 숭복사탑사리기가 있다.

<표 2> 사리장치의 유형분류

| 호합형 | 상자형 | 보장형 | 관곽형 | 다각당형 | 탑형 |
|---|---|---|---|---|---|
| 불국사<br>삼층석탑<br>사리호 | 섬서성<br>남전현<br>출토사리장엄 | 법문사 지궁<br>중실<br>한백옥영장 | 감숙성<br>대운사탑<br>사리장엄구 | 황룡사<br>팔각당형<br>사리기 | 호림박물<br>관 소장<br>사리함 |
|  |  | | | | |

보장(寶帳)형[12]은 일반적으로 전각형으로도 표현된다. 다른 표현으로는 누각(樓閣)형, 상장(牀帳)형 또는 보각(寶閣)형으로도 알려져 있다.[13] 건축적 표현이 가장 많이 담긴 보장형은 전각에 보물 등으로 치장된 형태로, 일반적 건축 구성과 같이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로 나누어져 있다. 벽체부는 건물의 내부와 같이 사리의 봉안처로, 지붕부는 천개(天蓋)로 매우 화려한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모습은 건축물을 공예적 표현으로 사람이 건축물에서 생활한 것과 같이, 사리 또한 부처가 머물고 있는 전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표적 보장형 사리기로는 감은사 동·서탑 사리기와 송림사사리기,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외함이 있다.

관곽(棺槨)형은 관처럼 가로로 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리기로, 중국의 관형사리기에서 영향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691년의 감숙성 대운사탑 사리장엄구, 708년의 법문사 영장 도금 쌍봉문은관, 그리고 741년의 섬서성 경산사 사리내함(보장형식 관함) 등 많은 수의 관곽형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함을 제외하고는 안동 옥동 임하사 전탑지에서 발견된 은제 도금 사리외함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관함의 예가 적은 것은 불사리를 곧 불신으로 여겼던 인식이 있어, 유골을 안치하는 관형은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4]

다각당(多角幢)형 사리기는 기본적으로 보장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몸체가 육각, 팔각의 다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중국 요와 송대에 크게 유행하였던 목조건축의 영향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황룡

9) 김상태, 新羅時代 伽藍의 構成原理와 密敎的 相關關係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04, pp.86~87

10) 사리장치의 유형분류는 신대현의 앞의 책, pp.223~326과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 pp.52~59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11) 천개(天蓋)는 보개(寶蓋)라고도 부르며, 석가모니 재세시 야외의 설법장에 갈 때 뜨거운 햇살을 피하고자 산개(傘蓋)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불상 조성 시에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다. 신대현, 앞의 책, p.267

12) 장(帳)은 중국에서 불교전래 이전부터 사회적 신분이 높은 계층에서 사용되던 실내가구의 일종으로 상장(牀帳)이나 유막(帷幕)과 같은 북방민족의 기거형식의 계통을 가지고 있다. 김봉건 외,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p.200

13) 신대현, 앞의 책, p.243

14) 신대현, 앞의 책, p.326

사 구층목탑 출토 금동 팔각당형 사리기, 도리사 세존부도 금동 육각당형 사리기,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청동팔각당형 사리기,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금동 팔각당형 사리기 등이 있다.

탑(塔)형사리기는 사리를 탑에 봉안하는 개념과 상통하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복발탑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복발탑형은 티벳에서 유래한 나마탑 계통의 소탑과 연관되며, 함체 위에 놓이는 보륜형에 착안하여 보륜탑이라고도 한다.[15] 신라의 복발탑형은 인도의 형식과 같은 양식인데, 뚜껑 상부 장치물의 형태에 따라 탑형, 병형, 보주형 3종류로 나뉜다. 대표적 사례는 인도의 탁실라 출토사리기가 있으며, 신라는 황룡사 청동 사리호, 장연사지 삼층석탑 목제 금칠 사리호, 법광사 청동사리호, 호림박물관과 호암미술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소장의 복발탑형 사리기, 일본 정창원 소장 신라 사리기가 있다. 중국의 경우 방형, 혹은 육각형의 탑형 사리장엄구는 8세기 이후에 나타난다.[16] 이는 인도의 탑이 중국에 전래되어 목탑형식으로 변형되었던 것과 같이 탑형 사리장치에서도 목탑형식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9세기 이후의 사리기는 대부분 복발탑형으로 밀교 영향으로 세워진 일본 다보탑의 형식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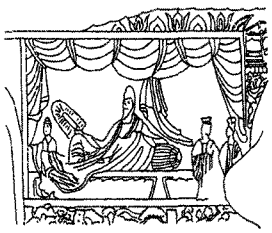
### 3.2. 보장형·관곽형사리함과 상(牀), 좌대(座臺)

보장형사리함은 다른 여러 형태의 사리함과 다르게 건축 형식과 의장표현이 완벽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불신(부처) 또는 귀인이 좌정(坐定)하는 공간을 사리함에 대비하여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대의 왕과 귀족은 실내공간에서 상(牀, 평상 혹은 침상)에서 거주하였음은 고구려의 고분벽화나 중국 석굴벽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다. 또한 삼국사기 옥사조를 통하여 상류층의 상에서의 거주를 알 수 있다.[17]

상은 건축물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가구의 일종으로, 의장적 요소가 매우 강한 실내건축물이다. 우리가 흔히 보아온 상은 마루나 방바닥 위에 나무로 된 의자이나, 고대의 상은 건물바닥위에 나무로 짜서 만든 기단, 내부공간, 지붕으로 이루어진 작은 건축공간으로 되어 있다. <그림 1, 2>의 고구려

<그림 1> 평상위에 좌정한 묘주 (고구려 안악 3호분)

고분벽화와 용문석굴의 상(牀)을 보면 중심인물이 상 위에 좌정(坐定)을 하였고, 상 바닥 위에 4귀에 기둥이 있으며, 기둥위에는 지붕이 상부를 막고 있다. 그리고 지붕에서 아래로 차양 혹은 발(簾)이 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의 왼쪽 비교는 중국 돈황석굴에 그려진 6세기 담연선사의 입락도와 8세기 일본 당초제사의 사리전이다. 가마안의 담연선사의 모습과 사리전의 사리함과 비교되며, 가마의 기단과 사리전의 기단 및 난간, 그리고 지붕부의 사모지붕형태와 장식, 발의 모습 등이 서로 비교된다.



<그림 2> 중국 용문석굴 빈양중동유마변 (남북조시대)

<표 3> 고대 건축과 보장형 사리장치와의 비교

| 가마(상)과 사리장치 비교 | | 불상좌대와 사리장치 비교 | |
|---|---|---|---|
| 돈황막고굴(323)의 담연법사입락도 | 일본 당초제사 사리전 | 일본 법륭사 금당 수미단 | 감은사 동탑 사리장치 |
| | | | |

<표 3>의 오른쪽 비교는 일본 법륭사 금당의 수미단과 감은사 동탑 사리장치와의 비교로 불상과 사리함의 사리는 불신으로, 기단부의 하대(下臺, 蓮臺)와 기단면, 그리고 상대(上臺, 仰花)가 서로 비교된다. 그리고 지붕부의 경우 수미단의 천장과 감은사 사리장치의 천장이 서로 비교되고 있다. 이는 천개(天蓋)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는데, 불상위에서 햇빛을 막고 있는 천개는 그 장식이 연꽃잎과 보망(寶網), 보주(寶珠), 영락(瓔珞), 그리고 번(幡) 등으로 하게 된다. 이는 법륭사 수미단과 감은사 사리장치의 천개장식에서 같은 수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3. 보장형과 관곽형 사리장치의 구성요소

보장형 사리장치는 전각형 가구의 형상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구성요소도 건축의 전각과 같다. 즉 건축구성의 3요소인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로 구성되어 있다. 관곽형은 상여형태의 관(棺)과 관을 보호하는 받침인 곽(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은 돈황막고굴 제148굴 열반경변의 세부그림으로 가마안에 관을 넣은 형태가 보인다. 가마의 모습은 마치 보장형 사리장치와 같으며, 관의 모습 또한 관곽형의 관과 같은 형태이다. 비록 중국의 관곽형이 지붕은 없으나, 곽의 모습이 보장형 사리장치의 기단부 형태와 같아, 관곽형의 전각형식 구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장충식, 금동보륜탑의 조사, 考古美術 136·137합집, 1978, pp.134~135, 신대현, 앞의 책 재인용
16) 주경미, 앞의 책, p.58
17) 三國史記 卷 第三十二, 雜志 第二 옥사조(屋舍條)의 기사 중 육두품의 본문에 "六頭品 室長廣不過二十一尺 不覆唐瓦 …중략… 床不得飾玳瑁紫檀沉香黃楊 …"이 있는데, 상을 대모, 자단, 침향, 황양으로 장식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어, 통일신라시대 귀족들의 상(牀) 사용을 알 수 있다.

전통건축에서의 기단부는 보통 1, 2단으로 구성되는 기단과 초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의 하중이 지반에 전달되기 위한 구조물이다. 벽체부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방(枋), 그리고 그 내부의 공간을 말하는데, 기둥과 상부구조인 지붕부의 하중을 연결하는 공포(栱包)부재도 있다. 지붕부는 지붕을 이루는 서까래, 기와로 이루어져있으며, 내부에는 지붕의 구조를 떠받치는 보와 도리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주거의 경우 높은 지붕의 공간을 막기 위한 천장이 있어 내부공간을 편안하게 한다.

<그림 3> 돈황막고굴 제148굴 열반경변 세부
주경미, 앞의 책, p.187 참조

보장형 사리장치의 구성도 전통건축과 같은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로 이루어지는데, 기단부는 탑의 사리공바닥 위를 지지하는 지대가 있고, 연꽃장식으로 된 하대, 기단면, 그리고 상대로 이루어져 있다. 하대와 상대는 수직의 기단면을 연결하는 바닥판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벽체부는 기둥, 그리고 내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건축물과 같이 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둥 하부에는 주로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지붕부는 천개, 처마장식등으로 구분한다. 천개는 일반적으로 사모지붕의 형태로 구성하며, 지붕의 상부와 하부에는 교리와 관련된 형태의 장식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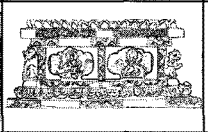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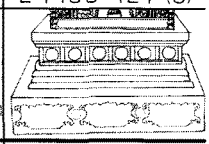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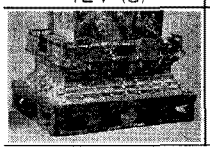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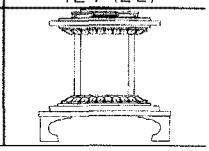
## 4. 동아시아 보장형, 관곽형 사리장치와 주자의 건축의장 표현비교

동아시아 보장형 사리장치의 건축표현에 대한 연구대상은 고대의 동아시아 삼국을 대표하는 보장형과 관곽형의 사리장치와 주자로, 통일신라의 송림사 금동사리장치와 감은사 동탑사리장치, 당의 법문사 지궁 중실 한백옥영장과 경산사 사리내함, 일본의 당초제사 사리전, 그리고 법륭사 옥충주자 등 총 6기의 사리장치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한·중·일을 대표하는 보장형 및 관곽형 사리장치, 그리고 주자이다.

### 4.1. 기단부의 건축의장요소

사리장치의 기단은 건축의 기단과 기본구성은 같으나, 장식과 세부 Detail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신라의 송림사의 기단은 2단구조로 상당히 간략화된 모습을 보인다. 기단부 1단은 목재에 금판을 놓아 못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구사하여 그 정교함이 떨어지나, 1단의 기단부 위의 연화문의 복련대를 설치하였다. 이는 일본의 법륭사 금당의 석가삼존불좌상의 수미단<표 3>의 구조

<표 4> 동아시아 삼국 보장형·관곽형 사리장치의 기단부 비교

| 송림사 금동사리장치의 기단부 (통일신라) | 감은사 동탑사리장치의 기단부 (통일신라) | 법문사 지궁 중실 한백옥영장 기단부 (당) |
|---|---|---|
| |  |  |
| 경산사 사리내함의 기단부 (당) | 당초제사 사리전의 기단부 (일본) | 법륭사 옥충주자의 기단부 (일본) |
|  | |  |

와 일치하며 지대석 위의 연화문대가 첨가된 형식의 초기형태라 볼 수 있다.[18] 감은사 동탑사리장치의 기단부는 지대와 그 위에 연잎으로 된 하대가 제일 아래에 위치한다. 기단면은 면처리가 아닌 기둥을 양각(陽刻)하여 마치 기둥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였다. 기둥사이에는 안상(眼象)을 감실처럼 음각하여 그 안에 비천(飛天)을 조각하여 붙였다. 상대는 2단으로 건축물의 상부구조를 묘사하였으며, 면에는 당초문양을 조각하였다. 동탑사리장치의 경우 하대의 각 모서리에는 사자상을 놓아 다보탑의 의미를 상징화 하였다.

당시대 법문사 지궁 중실 한백옥영장 기단부는 지대가 없는 2중의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단은 각 면에 3개의 안상이 조각되어있다. 3단구성의 기단 하대와 기단면석의 양각된 기둥처리는 건축의 기단부를 묘사하였으며, 기둥 사이에는 사천왕, 팔부신중과 같은 신장의 얼굴을 조각하였다. 기단면 위에는 3단구성의 상대가 있어 건축물의 공포를 형상화하였다. 경산사 사리내함의 기단부는 제일 하단의 지대가 없이 바로 기단면이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면석을 마치 지대처럼 구성하였다. 기단면에는 감은사와 같이 안상이 조각되어있다. 그러나 안상은 금속판을 떼어 내서 4면을 구성하였음이 감은사와 차이가 있다. 경산사 사리내함의 특징은 기단면 위의 계단으로, 3단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상부에는 작은 기단면이 구성되어있다. 기단면 위에는 2단으로 구성된 상대받침이 있고, 상대는 벽체부를 지지하고 있다. 2단의 상대받침은 전통목조건축에서 보이는 공포[19]를 표현하고 있다. 법문사와 경산사의 2단으로 구성된 기단면은 다른 보장형 사리장치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기단부에는 구슬모양의 각종 보석을 달아 화려함을 극대화하였다.

일본 당초제사 사리전의 기단부는 매우 간략화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대면을 둥글게 깍아 부드럽게 처리를 하였으며, 지대위의 기단면은 감은사와 같이 안상을 음각처리 하였는데, 안상사이에 기둥을 양각하여 마치

18) 양윤식,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사리장치의 건축적 고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pp.189~190
19) 중국에서는 공포를 두공(枓栱)이라고 표현한다.

기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는 기단면을 석조가 아닌 목조건축의 형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당초제사의 사리전 기단면의 특징은 상대가 없이 기단면이 바로 입면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륭사 옥충주자는 기단부가 총 3가지로 지대, 수미단, 기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탑이나 석등에서 그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지대의 안상은 다른 사리장치와 다르게 1기의 안상을 형성하며 마치 상(牀)의 기둥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수미단은 상대와 하대를 모두 연엽으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기단은 4면에 계단을 두어 건축물과 같은 형태구성을 하였으며, 기단면도 안상으로 처리하여 고대 건축의 기단장식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다. 수미단이 지대와 기단에 비하여 매우 세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리장치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간략화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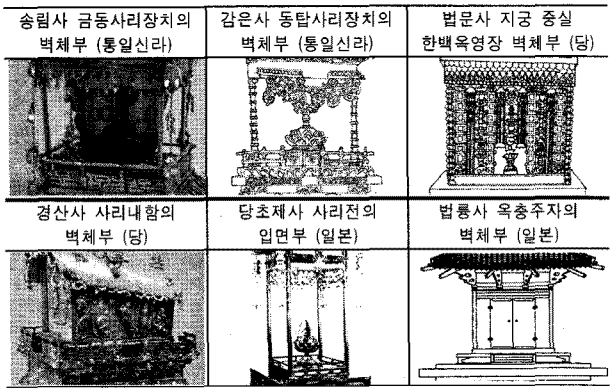
### 4.2. 벽체부의 건축의장요소

보장형 사리장치의 벽체부에 있어서, 송림사, 감은사와 당초제사는 4면이 개방된 내부공간을 노출시키고 있으나, 법문사와 경산사 사리내함, 그리고 옥충주자는 4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림사 사리장치와 감은사 동탑사리장치의 경우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개방된 공간의 상장(牀帳)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송림사사리장치는 4개의 원형기둥으로 이루어진 내부공간에 사리병을 넣어 보과하고 있으며, 난간은 통일신라시대 유행하였던 만(卍)자형 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은사 동탑사리장치는 대나무형태의 기둥이 네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둥 상부에는 창방이 가로질러 지나고 있어 마치 목조건축의 내부공간을 연상하게 한다. 기둥 하부에는 고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I자형 동자주로 구성된 난간이 있어 당시 난간건축의 형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내부에는 사리병을 중심으로 승상과 동자, 그리고 사천왕들이 배치되어 마치 설법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와 하늘을 다스리는 다보여래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감은사 동탑 사리장치의 입면상 특징으로는 서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비(門扉)인데, 동쪽의 석가모니가 서쪽의 다보탑에 들어가기 위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중국 당시대의 법문사 영장은 면에 기둥과 내부 공간을 조각으로 묘사하였는데, 기둥이 감은사 동탑사리장치와 같은 보주 혹은 대나무형태의 기둥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둥사이에는 갖가지 보석모양의 장식을 조각하였으며, 기둥 상부에는 보망형태로 조각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경산사 사리내함은 감은사와 당초제사와 다르게 판형을 하여 조각하였기 때문에 입체적 조형미는 떨어지지만, 조각의 Detail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다. 벽체부의 특징은 4면에 입구가 있는 만(卍)자형 난간으로 조성하였는데,

<표 5> 동아시아 삼국 보장형·관곽형 사리장치의 벽체부 비교




만자형 난간은 8세기 통일신라에서 많이 사용된 사례로 의장수법의 국제화를 알 수 있다.[20] 난간안의 내부공간은 경산사 사리내함의 특징인 보장형식의 관곽 형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하부에는 보장형의 구성이지만, 상부에서는 중국에서 유행한 관곽형을 사용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입면의 각 면에는 경전에 나오는 부처의 설법과 고행의 모습을 부조하여 붙인 조각을 볼 수 있다.

당초제사의 사리전의 벽체부는 기단부와 같이 매우 단순하게 구성하였는데, 감은사와 마찬가지로, 기둥상부에 창방을 두었으며, 하부에는 I자형 동자주로 구성된 난간을 두었다. 다만 1층 난간의 구성이 감은사의 6칸과 다르게 4칸 구성을 하였고, 2층의 경우 감은사의 6칸과 당초제사의 2칸 구성이 다르게 구성되었다. 벽체부의 단순화에 비하여 내부공간의 사리병은 연꽃모습으로 매우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이는 사리병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법으로 보이며, 단순함과 화려함의 대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륭사 옥충주자의 경우 정면과 좌우면에 여닫이 문을 달았는데, 그 형태가 장식이 배제된 간략한 모습[21]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상부의 공포의장은 시대를 대표하는 하앙식의 운형첨차를 가진 매우 아름다운 장식을 보여 주고 있다. 운형의 첨차는 옥충주자를 보관하고 있는 법륭사와 그 형태가 흡사하여 옥충주자의 모형은 법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4.3. 지붕부의 건축의장요소

사리장치에서 가장 화려한 부분은 지붕부이다. 지붕 또는 천개의 장식으로는 연잎과 번장식이 사용되는데, 모든 천개장식에 빠짐없이 사용된다. 불사리가 부처를 의미 하므로 부처의 상부를 덮는 천개는 마치 스투파의 상륜과 같은 의미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송림사와 감은사 동탑의 사리장치 지붕부는 보장형 사

20) 송림사 사리장치의 난간도 만(卍)자 형태이다. 8세기 난간 수법으로 알려진 만자형 난간은 송림사의 시기를 7세기로 본다면, 만자형 난간의 출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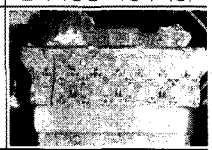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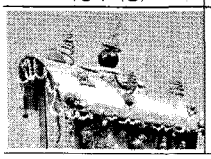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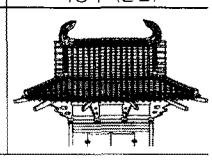
21) 벽면에는 불화로 장엄되어 있어 실제로는 화려한 외관을 보이고 있다.

리장치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하늘로 향하는 연화형의 2중의 처마 모습이 특징인데, 이는 중국 돈황 359벽화의 장형감(帳形龕)과 중국 보장형 사리장치인 법문사 백옥석 영장(靈帳), 일본 법륭사 금당 보개 등에서 볼 수 있다.[22] 천개의 장식으로는 연꽃잎과 보망(寶網), 보주(寶珠), 영락(瓔珞), 그리고 번(幡) 등으로 천개장식을 하였다. 하늘로 향하는 처마의 구성은 연꽃과 번이 하늘로 휘날리는 모습을 연출하여 불국토의 천상을 묘사한 것이다.

당시대의 보문사 영장은 대리석으로 2중의 하늘로 향하는 처마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역사다리꼴의 천개표현으로 감은사와 같이 불상을 조각하였다. 불상은 기둥으로 구성된 사각형 면의 감실형태에 조각되었다. 경산사 사리내함의 지붕은 관곽형태로 맛배 지붕의 모습이다. 장식으로는 영락과 보주, 연꽃, 그리고 상륜을 의미하는 나선형의 원호장식은 매우 간략하면서도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당초제사 사리전의 지붕은 사모지붕으로 가장 일반적인 지붕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늘로 솟아있는 처마는 고대 건축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으며, 지붕 상부의 보주는 마치 스투파의 상륜모습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다. 천개장식은 처마에 달린 번과 보망으로 연출하였는데, 장식은 밀교에서 많이 쓰이는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어, 밀교의 영향이 가장 지대하였던 일본 불교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법륭사의 옥충주자는 다른 사리장치와는 다르게 완전한 건축형태를 표현하였다. 고대에 유행하였던 하늘을 치솟을 것 같은 치미를 용마루 끝에 걸었으며, 팔작지붕의 형태는 처마마루보다는 내림마루를 더 길게 내었으며, 처마곡선도 매우 완만하게 처리하여 고대 일본건축의 정형적인 비례를 보여 주고 있다.

<표 6> 동아시아 삼국 보장형·관곽형 사리장치의 지붕부 비교

| 송림사 금동사리장치의 지붕부 (통일신라) | 감은사 동탑사리장치의 지붕부 (통일신라) | 법문사 지궁 중실 한백옥영장 지붕부 (당) |
|---|---|---|
| | |  |
| 경산사 사리내함의 지붕부 (당) | 당초제사 사리전의 지붕부 (일본) | 법륭사 옥충주자의 지붕부 (일본) |
|  | |  |

## 4.4. 동아시아 건축형 사리장치의 건축의장 의미

고대 건축의 모습은 시대적 문제로 인하여 주로 벽화고분이나, 가형토기, 공예품, 그리고 석탑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공예품은 형태가 3차원이면서,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 고대건축의 연구자료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송림사 금동사리장치, 통일신라 감은사 동탑 사리장치와 당 법문사 지궁 중실 한백옥영장, 경산사 사리내함, 일본 당초제사 사리전, 그리고 법륭사 옥충주자는 7·8세기에 제작된 사리보호장치로, 고대의 건축형태를 표현한 공예품이다.

기단부에서 감은사와 법문사 영장, 당초제사, 그리고 옥충주자는 비슷한 구조를 나타내었다. 비록 당초제사와 옥충주자가 간략화한 기단을 묘사하지만, 지대와 기단면, 그리고 안상의 구조는 매우 유사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중국 법문사 영장의 대리석과 경산사의 판형으로 인한 재료와 제작상의 차이로 인하여 표현의 제약이 있었으며, 지대가 없는 기단 형식과 3단의 하대의 계단 표현은 다른 보장형 사리장치와의 차별성이 보인다. 상대의 2단 처리는 목조건축의 공포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신라와 일본보다 건축적 구조표현을 더욱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송림사의 경우 기단표현이 매우 간략화 하였으며, 건축구조라기보다는 공예품의 조각요소가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벽체부에서의 특징은 송림사 및 감은사와 당초제사의 4면이 열린 내부공간의 표현과 법문사와 경산사, 그리고 옥충주자의 폐쇄적인 공간처리에 있다. 이는 법문사 영장의 대리석으로 된 재료적 특성과 경산사의 입면과 지붕부의 구성을 관곽형으로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옥충주자는 건축형태, 즉 불전형태를 완벽히 표현 한 것으로 실제적인 Solid의 벽체구성과 당시 유행하였던 하앙식공포 구성을 고대 건축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송림사와 감은사, 그리고 당초제사는 4면이 보이는 Void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리병과 주변의 인물상들을 매우 세심하게 제작하였으며, 전각의 내부공간을 통하여 부처의 거주성을 보다 강조하였다. 난간의 경우도 감은사와 당초제사는 공통적 의장수법이 보였으며, 송림사와 경산사는 통일신라와 일본에서 8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만(卍)자형 난간을 표현함으로 국제화되는 건축수법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감은사 동탑과 법문사에서 기둥이 결절형 혹은 대나무형으로, 불국사 다보탑과 중국 돈황 제361굴(中唐)의 이불병좌 탑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대나무 기둥의 표현은 세장한 기둥의 모습을 연출하여 수직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이며, 견보탑품에 묘사된 하늘로 상승하는 다보탑을 형상화하기 위한 수법으로 사료된다. 지붕부의 경우에는 모든 사리장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장적 혹은 장식적 공통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송림사와 감은사, 법문사와 당초제사는 하늘로 향하는 이중천개와 처마처리방식 등 지붕구조를 통하여 천상의 표현을 의도하였으나, 경산사의 경우 관곽형의 형태

22) 김상태, 7·8세기 신라 사리장엄에 표현된 건축의장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권 4호, 2007, p.8

<표 7> 동아시아 건축형 사리장치의 의장요소 비교표

| 국호 | 사리장치명 | 기단부 | | | | | 벽체부 | | | | | | 지붕부 | | |
|---|---|---|---|---|---|---|---|---|---|---|---|---|---|---|---|
| | | 지대유무 | 기단수 | 기단요소 | 계단표현 | 안상유무 | 벽면개방 | 난간형태 | 기둥형태 | 門 형태 | 공포의장 | 벽면장식 | 지붕유형 | 지붕형태 | 지붕장식 |
| 신라 | 송림사 금동사리장치 | ○ | 2 | 2 | × | × | ○ | 卍자형 | 원형 | × | × | 보주,연꽃 | 천개형 | 역사다리 | 연꽃잎,보망, |
| | 감은사 동탑사리장치 | ○ | 2 | 4 | × | ○ | ○ | Ⅰ자형 | 대나무형 | 문비 | 창방표현 | 배형, 불상 | 천개형 | 역사다리 | 보주,영락,번, |
| 당 | 법문사 한백옥영장 | × | 2 | 4 | 3단구성 | ○ | × | × | 대나무형 | 비움 | 면장식 | 보석,보망 | 천개형 | 역사다리 | 불상 |
| | 경산사 사리내함 | × | 2 | 4 | 3단구성 | ○ | × | 卍자형 | × | 비움 | × | 보주,불조각 | 관곽형 | 맛배형 | 영락,보주,상륜 |
| 일본 | 당초제사 사리전 | ○ | 2 | 2 | × | ○ | ○ | Ⅰ자형 | 원형 | × | 창방,평방 | 보주,보망 | 건축형 | 사모형 | 보주,번,보망 |
| | 법륭사 옥충주자 | ○ | 2 | 5 | 건물계단 | ○ | × | × | 4각 | 판문 | 하앙 | × | 건축형 | 팔작형 | 치미 |

를 통하여 중국인들의 현실적인 종교관을 표현하였다. 옥충주자의 경우 고대 건축에서보이는 치미를 과장되게 극대화하여 표현함으로 전각형태의 사리장치임을 보다 명확하게 묘사하였다.

## 5. 결론

고대 7·8세기 동아시아 사리장치의 건축의장요소에 관한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치의 유형 분류는 호합형, 상자형, 보장형, 관곽형, 다각당형, 그리고 탑형으로 분류한다.

2. 보장형과 관곽형 사리장치는 건축의 상장과 전각을 형상화하였으며, 고대 왕과 귀족이 사용한 상(床)과 가마를 형상화 하였고, 불전의 수미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불사리를 부처로 환원하여 부처가 기거 혹은 좌정하는 공간이며, 불상을 모신 전각을 축소하여 공예화 한 것이다.

3. 송림사 금동 사리장치와 감은사 동탑사리장치는 전각을 충실히 표현한 보장형 사리장치으로, 지대, 기단면, 상대의 기단부와 4개의 기둥으로 한정한 내부공간의 벽체부, 이중의 천개와 여러 장식을 통한 지붕부 등을 완벽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다른 지역보다 면밀한 의장적 조각수법이 돋보였으며, 불상과 승상, 사천왕과 동자 등의 조각으로 입체적 공간을 극대화 하였다. 이는 불사리를 부처와 동격으로 하여 사리장치 또한 부처가 기거하는 공간으로 생각한 통일신라인들의 이상적인 불교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

4. 당시대의 법문사 지궁 중실 한백옥영장은 보장형사리장치로 대리석으로 조각하였으며, 경산사 사리내함은 보장형과 관곽형을 적절히 혼합하여 나타낸 사리장치로 중국인들의 현실적인 종교관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다. 두 사리장치의 기단은 다른 보장형보다 정교하면서도, 계단과 공포 등 현실에 가까운 건축 구조표현을 하였다. 경산사 사리내함의 사리를 보관하는 관함은 죽은 이의 관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는 사리를 죽은 이의 몸에서 나온 유골이라 생각하였음을 말한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당시대의 종교관을 보여주고 있다.

5. 일본의 당초제사 사리전은 다른 보장형 보다 늦은 시기에 제작한 사리장치로 통일신라 감은사지의 사리장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부의 구성, 벽체부의 난간 Detail, 4면이 열린 내부공간과 사리병, 하늘위로 향하는 지붕부의 형태와 장식은 통일신라의 사리장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륭사 옥충주자는 다른 5기의 사리장치보다 완벽한 전각(불전)형의 형태와 의장을 보여 주고 있으나, 기단부의 경우 다른 사리장치와 같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시대적으로 가장 늦은 시기의 사리장치임을 알 수 있다.

6. 상기의 결과를 통해 고대 중국의 사리장치는 현실적인 종교관의 표현을, 신라는 형이상학적인 불교의 이상세계를 묘사하였으며, 일본은 중국과 신라의 특성을 모두 수용하여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1. 三國史記 卷 第三十二, 雜志 第二 色服 車騎 器用 屋舍
2. 신대현, 한국의 사리장엄, 혜안, 2003
3.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
4. 신대현, 적멸의 궁전 사리장엄, 한길아트, 2003
5. 김봉건 외,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6. 蕭默, 中國建築藝術史-上, 文物出版社, 1999
7. 박언곤, 한국건축사 강론, 문운당, 1998
8.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9. 국립중앙박물관-강우방, 佛舍利莊嚴-佛舍利莊嚴論, 도서출판 김문사, 1991
10. 김상태, 감은사의 사리장엄에 의한 2탑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6권 2호, 2007
11. 김상태, 7·8세기 신라 사리장엄에 표현된 건축의장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권 4호, 2007
12. 신대현, 韓國 古代 舍利莊嚴의 樣式 硏究-특히 寶閣形 舍利器의 발생과 전개에 대하여, 文化史學 17, 2002
13. 윤희상, 옥충주자(玉蟲廚子) 건축의 원류와 교류관계, (강좌)미술사 16권, 한국불교미술사학회논문집, 2001
14. 大野敏, 飛鳥 · 奈良時代の廚子 廚子の建築的硏究古代編, 建築史學 第29号, 1997
15. 장충식, 금동보륜탑의 조사, 考古美術 136·137합집, 1978
16. 김상태, 新羅時代 伽藍의 構成原理와 密敎的 相關關係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04
17. 김주미, 玉蟲廚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1



[논문접수 : 2010. 04. 30]
[1차 심사 : 2010. 05. 20]
[게재확정 : 2010. 06. 11]